

4 뉴스

# 행복기숙사 학생 택배 찾기 어려워

천민주 기자 cheonminju03@khu.ac.kr

행복기숙사 학생들이 택배 수령에 불편을 겪고 있다. 택배사가 택배 보관함의 번호를 알려주지 않거나 입구 바닥에 물품을 방치해 기숙사 행정실에서 택배사에 여러 번 협조를 요청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현재 행복기숙사에서 택배 물품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다. 택배 보관함 번호를 고지받았다면 해당 보관함에서 택배를 수령하게 된다. 하지만 택배 보관함 번호를 고지받지 못했다면 배송된 모든 택배를 확인해야만 택배를 수령할 수 있다. 행복기숙사에 거주 중인 A 씨는

“택배를 찾는 데에만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A 씨는 “특정 택배사는 택배 보관함의 번호를 고지해주지 않는다”며 “택배 보관함 번호를 고지해주지 않으면 배송된 모든 택배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A 씨는 이어 “창고 바닥에 택배가 놓여 있는 것 또한 문제”라며 “바닥에 있을 경우 뒤섞이기 쉽다”고 말했다. 본인 택배를 찾는 과정에서 다른 택배를 해집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행복기숙사에 거주하는 B 씨는 “본인의 택배를 찾고자 배송된 다른 택배를 건드리는 학생들이 있다”며 “그런 개개인의 행동 때문에

고지받은 택배 위치가 달라지면 해당 택배를 찾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행복기숙사 자치위원회는 학생 불편을 반영해 지난 5일부터 새로운 조치를 취했다. 택배사별 분류가 없었던 이전과 달리, 택배 보관함 선반에 택배사별 물품 보관 위치를 지정했고 창고 바닥이나 다른 택배사 선반에 물품을 놓는 것을 금지했다. 자치위원회는 또한 다른 택배를 해집는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이를 인지하고 인식적 차원에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상별 규정으로 벌점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라며 “이후 추가적인 불편이 자치회 SNS 창구를 통해 접수될 경우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행복기숙사 행정실은 “코로나19로 택배량이 크게 증가했고, 또 학생들이 택배를 빠르게 찾아가지 않



행복기숙사 자치위원회가 학생 불편을 반영해 지난 5일부터 새로운 조치를 취했다. (사진=행복기숙사 자치위원회 제공)

아 택배가 쌓이면서 택배 수령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행정실에서도 찾아가지 않는 택배를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주인을 찾아가거나 폐기 처분하고 있지만 두 달간 찾아가지 않는 택배의 수가 약 50건 이상이다”고 말했다. 이어 “무인 택배 보관함 업체와 계약했지만, 이는 택배사가 직접 택배를 넣어야 하므로 우체국 택배를 제외한 나머지 택배사는 이를 잘 이용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문제를 자치위원회와

추후 협의해 시스템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행정실과 자치위원회 모두 “여러 번 택배사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행정실은 “공지는 하지만 택배사와의 불화로 택배사가 배송을 거부할 시에는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이를 택배기사에게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과 택배사 협조 모두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외국어대 전출 인원 가장 많아

이수현 기자 dlingus011208@khu.ac.kr

2022학년도 1학기, 국제캠퍼스(국제캠)에서 서울캠퍼스(서울캠)로 전과한 인원이 103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캠에서 국제캠으로 전과한 인원 4명에 비하면 상당한 수준으로 보인다. 캠퍼스별로 전과 인원이 크게 차이는 나는 이유는 국제캠에 있는 외국어대학(외대)의 영향으로 보인다. 외대에서 서울캠으로 전과한 인원은 50명으로, 서울캠으로 전과한 국제캠 인원 중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또 외대는 전체 23개 단과대 중에서 가장 많은 전출 인원인 53명(서울, 국제 합산)을 기록했다. 외대에서 전과생이 많은 이유는 ▲취업을 고려한 사회과학 계열 전공 희망 ▲잘못된 이원화 인식 등이 꼽혔다. 이번 학기 외대에서 정경대로 전과한 A 씨는 “외대 특성상, 전공 언어와 문화에 대한 강의가 대다수였는데, 전공 언어 같은 경우 어학원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는 마음도 들었다”며 “취업과 미래를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실용적인 학문을 배우고자 전과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들이 이원화에 대한 잘못



외국어대학 전경

(사진=대학주보 DB)

된 인식 때문인지, 외대를 분교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러한 시선과 인식이 전과를 결심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외대는 지난해에도 전체 단과대 중에서 가장 많은 전과 학생 수를 기록했다. 이에 외대는 타 단과대로 전과하는 학생 수와 관련해 내규(안)을 논의한 바 있다.(관련 기사: 외대 전과 내규 논의 전출 인원 축소 제안/대학주보 온라인(2021.12.07.)) 기존 재학생에게 돌아가는 피해의 정도와 교육과정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와 같은 전

출 비율이 누적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외대 관계자의 입장이었다. 이에 외대는 양 캠퍼스 간, 각 캠퍼스 내, 학과 간 전과 비율을 현행 20%에서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10%로 줄이기로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외대 관계자는 “전과 내규 신설은 현재 논의 중인 사항으로 학장, 부학장, 외대 학생회장, 외대 7개 학과 학생회장이 모여 외대 전과 내규를 정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왔다”며 “아직 논의 단계이고, 양캠퍼스 교무처장, 부총장, 입학처장 등 학교 당국과 협의를 거쳐

야하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외대의 전출 인원 제한과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했다. 전출 인원 제한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였다. 외대에 재학 중인 B 씨는 “전출 인원 제한은 단편적인 대안”이라며 “강의 개편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과 및 전출인원 허용범위는 학칙 제8장 23조와 전과시행세칙 제4조 1항에 의해 입학 정원 20% 내에서 가능하지만, 예외조항으로 학과(부) 내규로 그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1면 ‘국제 총학 ‘ON’ 임기연장, 여론 엇갈리’에서 이어짐  
반면 공과대학에 재학 중인 19학번 A 씨는 “ON 총학은 지난해 KHUIz-ON 행사 당시 여러 논란을 일으켜 탄핵 의결까지 간 총학”이라며 “당시 수많은 학생이 탄핵 서명에 참여했고, 중운위 탄핵 의결도 아슬아슬하게 면한 ON 총학이 앞으로 두 학기나 학생 사회를 대변할 정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의문”이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전 회장은 “두 번의 (총학생회장단) 선거 무산이 있었다”며 “ON 총학도 학교 발전과 학생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분들, 저희를 대체할 분들이 있어 차기 총학이 들어섰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 회장은 “ON 총학이 계속 눌러앉아있으니까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ON 총학은 학생대표단에 공백이 생기는 것이 결코 건강한 체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비난이나 비판을 받는 것이 총학생회장단의 부재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전 회장은 “어떠한 이득을 취하려고 남은 것이 아니다. 학생회장단의 공백이 생겼을 때, 학교에서 학생들과 학생회를 바라보는 인식이 가벼워질 것이고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예방하기 위해서 ‘ON 총학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사명감이 있었다”라며 “(학생들이) 너무 미운 시선으로만 보지 말고 모자라면 피드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